완도군 미세먼지 없는 해양치유도시 박차

해조류 가치 알리고 청정 해양자원 활용 산업 육성 총력…2030년까지 1조대 클러스터 조성

완도군이 청정지역의 장점을 살려 고농 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해양치유도시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.

10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미세먼지 배 출에 도움이 되는 완도산 해조류의 효능과 가치를 알리고, 청정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 육성에 총력 을 기울이고 있다.

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완도군은 초미 세먼지가 평균 23.8 μg/ ㎡로 우리나라 서 부권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최근 2개월간 (2019년 2~3월) 에어코리 아가 관측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남 이 29.2ug/m이었으며 서울(40.2), 인천 (36.3), 경기(42.3), 충북(46), 충남 (39.6), 전북(42.2), 광주(36.5) 순으로

완도군은 연중 푸른 난대 숲과 크고 작은 265개의 섬, 1038km의 리아스식 해안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으 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.

또 공기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산소음이 온 발생량이 1cm 당 3181개로 대도시의 50 배에 달하며 우리나라 탄소 저장 대표 수 종인 붉가시나무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.

이와함께베타피넨(β -pinene)함량이 높은 동백, 황칠 등 희소가치의 난대수종이 집중 분포하고 사면이 바다로 해안과 접해

있어 공기중의 바다 미네랄이 풍부해 휴식 과 힐링하는데 최적의 장소로 평가된다.

이러한 청정 대기환경과 함께 완도군은 미세먼지 배출에 탁월한 해조류의 주산지 로 다시마는 전국 생산량의 70%, 톳은 60%, 미역 46%를 생산하며 '해조류 산업 의 허브'로 불린다.

가천대 이길여 암・당뇨연구원은 미역, 다시마 등 해조류의 알긴산 성분이 몸속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흡착해 배출하고 베 타카로틴 성분은 호흡기 점막을 강화시켜 미세먼지가 체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돕 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완도산 해조류 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.

완도군은 이를 바탕으로 2017년 10월, 국가 지정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 정되었으며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

해양치유란 해양기후(해풍, 태양광, 해 양에어로졸) 와해수, 해양생물(해조류, 전 복 등), 해양광물(갯벌, 모래, 맥반석 등) 을 활용해 만성 질환을 치료하고 몸과 마 음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을 말한다.

신우철 완도군수는 "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해양치유센터와 치유병원, 치유공 원, 치유리조트, 해양바이오 연구소, 기업 등으로 구성된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"이이며 "해양치유를 통해 국 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/완도=정은조 기자·전남주재총괄본부장

전남 '농민수당' 정부의 선택은?

복지부, 이달 화순군에 통보…결과 관심

전남지역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'농민 수당' 제도가 실현될 지 주목된다. 이달 내로 화순군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과에 관 심이 쏠리고 있다.

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화순군이 지난해 농민수당 추진과 관련, 복지부 협 의를 요청하면서 이달 내 검토결과를 통 보할 예정이다.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사회보장제도를신설하거나변 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, 기 존 제도와의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복 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전남에서는 화순군을 시작으로 함평, 광양, 해남, 강진 순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. 화순군은 복지부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1만여 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의 농민수당을 매월 현 금 5만원과 지역품 5만원을 지급하는 형 태로 시행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.

해남의 경우 복지부 협의는 다소 늦었

지만 전국 최초로 '농민수당 지원 조례 안'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. 해남군은 복지부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가 확정되면 1년 이상 해남군에 주 소를 두고 있는 해남군만을 대상으로 농 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 하는 농업인에게 전•후반기 각 30만원씩 모두 60만원이 지급할 계획이다. 함평군 도 분기별로 3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지역화폐인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 는 방침을 정했고 광양시와 강진군도 농 민수당 도입을 앞두고 복지부 협의를 진 행중이다.

복지부는 가장 먼저 협의에 들어간 화 순군에 대한 협의 결과를 통보한다는 방 침이어서 결과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.

복지부 관계자는 "지난 2월 전문가회 의를 거쳐 이달까지 타당성, 기존 제도와 의 관계, 재정 및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 향 등을 검토해 화순군에 통보할 예정"이 라고 말했다. /김지을 기자 dok2000@

문 대통령-트럼프 '톱다운 방식' 논의

북핵문제 해결 절충점 주목

북미협상 재개에 분수령이 될 한미정상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 기조를 재확인해 회 담 결과가 주목된다. '빅딜'과 '단계적 접 근'으로 벌어져 있는 미국과 북한의 간극 을 좁혀 절충점을 찾아내는 게 문재인 대 통령의 과제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의 협상 교착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.

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(현 지시간)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'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'라는 질문에 "그렇다"라고 답변했다. 직접 최대압박 유 지를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한미정상회담 을 위해 문 대통령이 방미길에 오르기 몇 시간 전 상원에서의 문답을 통해 미국의 대북 최대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. 그는 이날 소위에서 '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' (FFVD)라는 대북 원칙도 재차 강조하면서 재래식 수단의 위험 감소 도 대북외교의 목표로 언급하기도 했다.

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이러한 기본 입장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회담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고수 될지다. 한국 정부는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 라는 '큰 그림'에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최 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동력으로 '굿 이 너프 딜' (충분히 괜찮은 거래)을 마련한다 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. 만약 트 럼프 대통령이 대북 최대압박 기조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 태도를 고수 한다면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절충지대로 미국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.

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 재무부의 추 가 대북제재를 트윗으로 철회하는 등 북미 협상 재개에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를 남겨 둔 만큼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 회담 테이블에서 밝힐 구체적 입장이 주목 되는 상황이다.





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인사하고 있다. 문 대통령은 11일(현지시간)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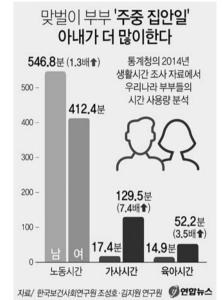
맞벌이 '집안일' 아내가 남편보다 7.4배 많다

맞벌이 부부는 부부가 둘 다 경제활동 을 하지만, 아내가 남편보다 집안일을 하 는 시간은 7.4배, 육아시간은 3.5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호·김지원 연구원은 10일 '일·생활 균형을 위한 부 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'에서 통계청 의 2014년 생활시간 조사 자료에서 우리 나라 부부들의 시간 사용량을 분석,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.

조사결과, 맞벌이 부부의 주중 노동시 간은 남편은 546.8분, 아내는 412.4분으 로 남편이 아내보다 1.3배 정도 길었지 만, 주중 가사시간은 남편은 17.4분, 아 내는 129.5분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7.4 배 길었다. 주중 육아시간도 남편 14.9 분, 아내 52.2분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3.5배 많았다. 다만, 주중 여가시간은 남편 215.8분, 아내 215.5분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
또 맞벌이 부부의 주말 시간 배분을 살 펴보면 가사시간은 남편 41.0분, 아내 176.4분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135.4분



(4.3배) 길었다. 주말 육아시간도 남편 28.8분, 아내 48.6분으로 아내가 남편보 다 19.8분(1.7배) 많았고, 주말 여가시 간은 남편 410.4분, 아내 362.4분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48분(1.1배) 짧았다.

바로삽니다. 010-6834-7400.지분물건 환영

'새로운 전라도 천년' 도올 김용옥 18일 도청서 강연

별강연'을 연다.

이날 특강은 '전라도 정신의 세계사적 조명'을 주제로 한국을 이끌어온 전라도의 '혼과 정신'이 무엇인지 역사적 사건을 중 심으로 진행된다.

도올 선생은 고려시대부터 해방 이후까 지의 역사적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 석하고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운

전남도는 '새로운 전라도 천년'을 맞아 동, 의병 등 민족 항쟁을 풀어내 설명할 예 오는 18일 오후 3시 전남도청 김대중강당 정이다. 또 여수 순천 10·19 사건이 일어 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을 초청 '새천년 특 나게 됐던 당시의 사회구조와 공동체의 내 재적 요인을 설명하고 동학농민운동에서 이어져온 민족항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 면서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도 촉 구할 것으로 보인다. 전남도민이면 누구든 지 참석할 수 있고 무료로 진행된다. 문의 는 전남도 행정지원과(061-286-3392)로 하면 된다.

/김지을 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

판결문, 공증·공사대금·각서·운송료 차용증·거래장부·계약서·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

- ▶ 절대 선수금, 출장비용 없음 ◀ (재산조사비,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)
- 채무자 재산, 신용·주거래은행·차량등 파악
- 실거주지파악가능
-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
-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

▶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◀

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.

>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(24시간 상담가능)

NAVER 채권추심 회수왕

새한신용정보(주) 010 - 6833 - 1600 직통전화 062)513-4306

저희는 매도·교환·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!

팬션·전원주택지

- 장성 삼계면 죽림리 1536㎡ 백일홍·꾸지뽕나무 200여주있음 4800만원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㎡ 1억5800
- 신안 자은면 한운리 해수욕장 접 1654㎡ 별장 등 적합 분할가능 평당65만원
-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음 1130㎡ 1억2천

투자·매도·교환

- 급매(주택) 광산구 도천동 주택(방2) 대지 109㎡ 7천만원
-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아울렛 중 2층 전유 38㎡ 은행1억 매도4천 • 영암 삼호읍 용당리 공업지역 6019㎡ 은행 2억3천 매도 4억2천
- 운암동 대형아파트 지하 205㎡ 사무실 등 다용도 교환가능 1억8천
- 영광 염산면 신성리 땅 3088㎡ 주택 95㎡ 유실수 100여그루식재 2억 • 서구 아파트단지 반지하노래방 265㎡ 룸7 교환가능 임대중임 4억7천
- 강진 성전면 월출산 밑 4차선 접 4630㎡ 대형 저수지 인근 요양시설 적합 5억 •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㎡ 커피숍·식당 적합 3억4천

상가건물

- 영광 염산면 바닷가 땅 2191㎡ 펜션 건물 2동 380㎡ 수영장. 매도 3억7천 • 충장로 4가 땅 261㎡ 건물 1128㎡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. 25억
- 동구 지산동 땅 4732㎡ 건평 652㎡ 식당적합 18억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㎡ 건평 919㎡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 중 12억
-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㎡ 건물 265㎡ 8억
-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㎡ 건물 4층 263㎡4억천 •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㎡ 상가주택 357㎡ 매도 5억8천

- 나주 남평읍 우산리 61111㎡ 지구단위 해서 아파트 적합 222억 • 장흥 수문해수욕장 2346㎡ 팬션 등 적합 원룸부지와 교환가능 4억7천
- 북구 용두동 6차선접 4899㎡ 물류창고 등 다용도 적합 45억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펜션 대지 2180㎡ 펜션3동 372㎡ 8억 • 나주 금천면 국도 접 주거지·대지·자연녹지 25714㎡ 은행 12억 매도 24억
- ☎ 문의 222-4994, 010-2632-5659 서구한전, 농성초교옆문앞

• 북구 북동 금남로 5가역 대로접 중심상업지 364㎡ 사옥 등 적합 12억

■ 여수시 봉강동, 대지 431평

(세일신경외과 바로 옆)

- 6차선 도로접, 전면65M
- 일반상업지역
- 대출-20억5천만원
- 시세/감정가-약 40억
- 모든업종 개발가능
- 분할매매 가능
- 매매 상담후 결정 주인직매. 010-3627-8282

